



St  
KIM  
andrew

St. Andrew Kim Dae Gon Korean Catholic Church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4/17/2022

22-17

Add: 4750 Challen Ave., Riverside, CA 92503 Tel: 951-533-0580 Email: standrewkim@sbdiocese.org Website: www.standrewkimchurch.org

(백) 주님 부활 대축일 낮 미사  
(Wh) Easter Sunday of the Resurrection of the Lord



“예수님께서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

“Jesus had to rise from the dead.”

요한 20,9 / Jn 20:9



### 본당 주임 신부님(Pastor)

김대선 바오로, MSC  
Rev. Paul Kim

### 미사시간 Mass Schedule

#### 주일미사 / Sunday Mass

한국어 / Kor. 10:00 am  
영어 / Eng. 3:00 pm

English Mass Celebrant: Fr. Ted Drennan

#### 평일미사 / Weekday (Korean)

화/Tu 7:30 pm  
수/W 10:00 am  
목/Th 10:00 am  
금/F 7:30 pm

#### 성시간 / Eucharistic Adoration

첫 금요일 / 1st Friday 8:00 pm

#### 첫 토요일 신심미사 / 1st Saturday Devotion

첫 토요일 / 1st Saturday 10 am

#### 고해성사 / Confession

미사 30분전  
(30min. before mass)

#### 병자성사 / Anointing of the Sick

사무실 문의/Call Office

#### 유아세례 / Infant Baptism

사무실 문의/Call Office

#### 혼배성사 / Marriage

사무실 문의 (6 개월전 신청) / Call Office (6 months advance)

#### 사무실 업무 시간 Office Hours

일/화/목/금

Su/Tu/Th/F 9:00am-4:00pm

월/수/토 휴무 M/W/Sat Closed

(Until 11/30 Temporary Schedule)

### 본당 연락처 (Parish Contact)

사무실 (Office)	951-533-0580
총무 (Pastoral Council)	전도미니코 (Dominik Jun)
연령회 (Senior Ministry)	이마태오 (Matthew Lee) 951-733-0389
전례분과 (Liturgical Ministry)	김마지아 (Matias Kim)
주일학교 (Religious Ed)	송세실리아 (Irene Song) 951-346-6151

### 구역장 (Territory Leaders)

	(총구역장)	
지식	윤(심포로사)	951-966-5868
지혜	임(유스티나)	951-235-1619
통달	현(마리안나)	909-767-8155
의견	김(로사)	909-297-0809
군셈	손(테레사)	805-407-5403
효경	정(바올리나)	951-454-3182
경의	김(테레사)	951-751-5696

### 교황님 기도 지향 (Pope's Intention) 4월 / April

#### 보건 의료 종사자들

특히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아픈 이들과 노인들에게 봉사하는 보건 의료 종사자들이 정부와 지역 공동체의 적절한 지원을 받도록 기도합니다.

#### For health care workers

We pray for health care workers who serve the sick and the elderly, especially in the poorest countries; may they be adequately supported by governments and local Communities.



**주님 부활 대축일 낮 미사 (다해) / Easter Sunday of the Resurrection of the Lord (Year C)**

**【입당송 / Entrance Antiphon】** ..... 시편 139(138),18,5-6 참조 / Ps 139(138):18,5-6

**【제1독서/First Reading】**..... 사도 10,34-37L-43 / Acts 10:34a, 37-43

**【화답송 / Responsorial Psalm】**

◎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This is the day the Lord has made; let us rejoice and be glad.

**【제2독서 / Second Reading】**..... 콜로 3,1-4 / Col 3:1-4

**【부속가 / Sequence】**

파스카	희생제물	우리모두	찬미하세.	그리스도	죄인들을	아버지께	화해시켜
무죄하신	어린양이	양떼들을	구하셨네.	죽음생명	싸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불사불멸	용사께서	다시살아	다스리네.	마리아	말하여라	무엇을	보았는지.
살아나신	주님무덤	부활하신	주님영광	목격자	천사들과	수의염포	난보았네.
그리스도	나의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너희보다	먼저앞서	갈릴래아	가시리라.
그리스도	부활하심	저희군계	민사오니	승리하신	임금님	자비를	베푸소서.

Christians, to the Paschal Victim Offer your thankful praises! A Lamb the sheep redeems; Christ, who only is sinless, Reconciles sinners to the Father. Death and life have contended in that combat stupendous: The Prince of life, who died, reigns immortal. Speak, Mary, declaring What you saw, wayfaring. "The tomb of Christ, who is living, The glory of Jesus' resurrection; bright angels attesting, The shroud and napkin resting. Yes, Christ my hope is arisen; to Galilee he goes before you." Christ indeed from death is risen, our new life obtaining. Have mercy, victor King, ever reigning! Amen. Alleluia.

**【복음 환호송 / Gospel Acclamation】**

◎ 알렐루야. Alleluia, alleluia.

Praise to you, Lord Jesus Christ, king of endless glory.

○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셨으니 주님 안에서 축제를 지내세.

Christ, our paschal lamb, has been sacrificed; let us then feast with joy in the Lord. ◎

**【복음 / Gospel】**† ..... 요한 20,1-9 / Jn 20:1-9

**【영성체송 / Communion Antiphon】**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셨으니, 순결과 진실의 누룩 없는 빵으로 축제를 지내세. 알렐루야, 알렐루야.  
Christ our Passover has sacrificed, alleluia; therefore let us keep the feast with the unleavened bread of purity and truth,

**미사지향(Mass Intention)**

Date/Time	4/17 10am	4/17 3pm
연미사(D)	이미카엘, 김율리안나, 유시몬 신부님, 민병애 마리아 막달레나, 김대식 베드로, 이불케리아, 이웅렬 요한, 안요왕, 박바드리시아, 채말기 모니카, 변정창 마리아, 신바로, 김아네스, 홍마리아고레띠, 주윤철 미카엘	Charles Angel Julie Fennel
생미사(L)	박정대 그레고리, 박정문 제임스, 김리디아, 김세레자 요한, 김다니엘, 이도미틸라, 이미자 테레사&조앤, 박우슬라 가정, 이디모테오&카타리나, 현마리안나 가정, 강프란치스코&마리아 가정, 염요셉&카타리나 가정, 제대회, 표승두 노엘, 황인석 가정	Antoinette Cecilia Cosme

\*\*\* 미사지향 신청은 일주일 전에 신청 바랍니다. 여기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 해주십시오.  
Please request mass intention in a week advance. Let us all pray for the intentions.



## 가난한 주님의 부활

이번 주님의 사순시기는 전쟁과 전염병으로 인한 인류의 아픔을 진하게 느끼게 되는 시기였습니다. 안타까움이 서린 이 때 두 손 모아 성모님께 묵주 알을 돌리며 기도하는 교우들의 진심어린 마음은 저를 주님께 인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의 수난과 고통을 가슴속 깊이 느끼는 은총의 시기였습니다. 그동안 피상적으로 느꼈던 주님의 부활이 이토록 간절하게 기다려진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는데 있어서 새롭게 깨우치게 되는 것은 인성(人性personality)과 신성(神性divinity)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이 감추어진 모습으로 고통스러운 수난과 인간과 똑같이 죽음을 맞으심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느님에게서 신성 없이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그냥그대로 보여 주십니다. 그러나 부활은 인간의 약한 모습이 사라지고 오히려 하느님의 힘인 신성을 온전히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도 조용합니다. 화려했던 강생(降生 incarnation) 즉, 성탄에 비하여 가난한 방식으로 들어나는 것을 주님의 빈 무덤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또 다른 특성일 것입니다.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을 때, 무덤의 돌은 치워져있고, 예수님께서서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막달레나는 빈 무덤을 보면서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진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부활에 대한 갈등이 대비되는 가운데 제자들을 찾습니다. 제자들 또한 빈 무덤을 발견하며 주님의 부활에 어리둥절해 합니다. 뭐지? 뭐야? 설명이 되지 않지만, 주님의 부활은 비움 즉, 가난을 들어내어 주고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에 나타나시는 하느님은 창조를 통하여 자신을 내어 주시는 하느님이십니다. 온갖 것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분은 자기를 비우면서 내어주시는 참 하느님이십니다. 이 하느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부활로 초대하여 새롭게 만나게 하십니다.

모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감내하고, 거부하고픈 죽음을 스스로 받아들여 부활하신 예수님은 비움을 통하여 평화를 우리들에게 선사합니다. 현세적인 생활에 기대어 산 우리들이기에 가난하고 비움의 주님 부활은 주님의 제자들처럼 너무 낯설고 어리둥절해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곳곳에 갈등과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이때 예수님이 선물하신 부활의 기쁨은 자기를 비움으로서 찾아온다는 것을 새롭게 느끼게 됩니다. 주님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 Lord's humble resurrection

This year's lent was filled with humane sorrows brought by war and pandemics. I have watched our brothers and sisters praying with rosary in this sad time. The view led me closer to the Lord. Through it, I received a blessing to sympathize with Jesus' suffering. I have never been longing for Jesus' resurrection this much.

What we can recognize from Lord's resurrection is Jesus' suffering like a human being without divine power, even though he has both personality and divinity. That is to say, God stops being divine but reveals the weak form of a human being. However, when He is raised from the dead, He is filled with God's might, divinity. Meantime, Jesus' resurrection is so quiet. Compared to his splendid incarnation in Christmas, HE reveals HIS resurrection in the form of an empty tomb. The emptying is another characteristic of Jesus' resurr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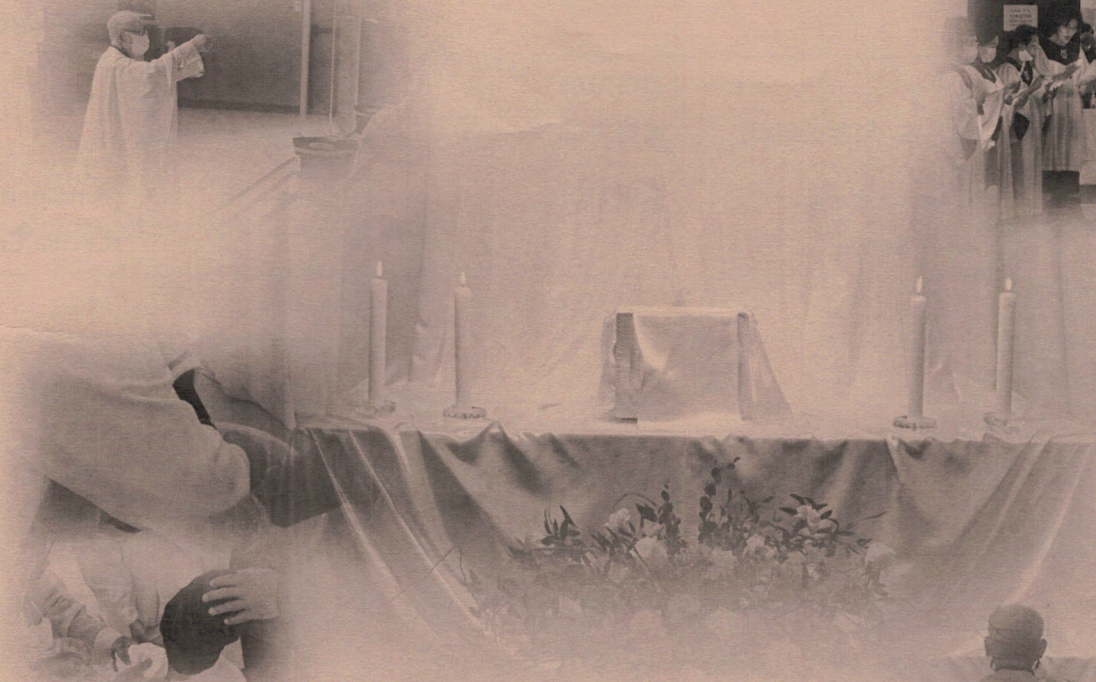
When Mary Magdalene went to Jesus' tomb, the covering stone had been rolled back, and Jesus was gone. Mary saw the empty tomb and was perplexed by the disappearance of Jesus' corps. She sought disciples, and disciples were also bewildered. They were saying, "What is this?" "What happened?" It is not an explainable event. HIS resurrection symbolizes emptying HIMSELF or being humbled.

God in Genesis gives HIMSELF to us by creating the world. HE creates everything, and HE unloads HIMSELF to give to us. Then, God invites us to meet HIM once more by Jesus' resurrection.

Jesus endured all physical and mental suffering and accepted dreadful death. HE is raised, and HE offers us peace by emptying HIMSELF. As we are accustomed to worldly pleasures, the humble resurrection of Jesus may look strange. Still, recall that many people in the world are suffering from conflicts and wars at this moment. Jesus offers us the joy of the resurrection, and we may realize that we can accept the joy by emptying ourselves. Happy Easter.



주님 만찬 성목요일



주님 수난 성금요일



파스카 성야





## 전례봉사 (Liturgical Server)

Date Mass Time	해설/ Narrator	독서/ Readers	전례부/Altar Server	반주/Organist	봉헌/ Offertory
4/17 Sun 10am	김세실리아	김분도, 임유스티나	김마지아 박아가다	강실비아	
3pm		Ester Le Blanc Fred Garcia	김마지아	Juliana Cho	Antoinette A. Cecilia Cosme
4/11 Mon	No Mass				
4/12 Tue					
4/13 Wed					
4/14 Thurs					
4/15 Fri					
4/16 Sat					
4/24 Sun 10am	최안드레아	신모니카, 김세실리아	오미카엘라, 박아가다	김스콜라스티카	
3pm		Maryann Angel Michael Angel	최클라라	Juliana Cho	Antoinette A. Cecilia Cosme

### 부활절의 기도

(이해인 수녀)

돌무덤에 갇힌 침묵이 큰 빛으로 일어나 눈부신 봄 빛이 어둠을 이겼습니다 용서가 미움을 이겼습니다  
슬픔과 절망으로 웃음 잃은 이들에게 기쁨으로 오시는 분 분쟁으로 얼룩진 이 세상에 평화로 오시는 분  
산 위에 바다 위에 도시 위에 눈물 가득한 우리 영혼에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빛나는

단 하나의 이름 예수여 당신은 왜 그리 더디 오십니까?

오오, 주님 생명이 죽음을 이겼습니다. 이제는 살아야겠습니다.

하루하루를 수난의 마지막 저녁처럼 부활의 첫 새벽처럼 살아야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당신과 함께 죽어서 당신과 함께 살게 해 주십시오 당신과 함께 어둠 속에 누워서  
밝은 빛으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당신은 왜 자주 숨어 계십니까? 좀더 일찍 알아 뵈지 못했음을 용서하십시오.

당신이 부활하신 세상에서 이제 거짓 사랑은 끝난 것입니다 삶을 지치게 하는 교만과 불신이 사라지고

겸손과 감사가 넘쳐 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기심의 무덤을 빠져나와 어디든지 희망으로 달려가는

하늘빛 바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오직 죽음을 이긴 사랑 하나로

새롭게 듣고 새롭게 말하고 새롭게 행동하는

부활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님이 오시는 들길을 웃으며 달려가는

연초록 봄바람으로 깨어있게 해 주십시오

알렐루야, 알렐루야...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오늘



**본당소식 / Parish News**

- ◆ 예수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Happy Easter!
- ◆ 평일미사(Weekday Mass)  
4/19(화)-4/22(금) 평일미사는 없습니다.  
이기간 동안 사무실도 쉽니다.  
There will be no weekday mass and office will be closed from 4/19 - 4/22.
- ◆ 故홍마리아고레띠 자매님 장례일정  
연도: 4/24(일) 10시 미사 후  
장례미사: 4/26(화) 오전 10시 (성 김대건 성당)  
▪ 이날 오후 7:30 미사는 없습니다.
- ◆ Bishop's Dinner (주교님의 만찬)  
일시(Date/Time): 5/14(토/Sat) 5pm  
장소(Place): JW Marriott 74-855 Country Dr. Palm Desert  
회비(Cost): \$250  
4/24까지 사무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  
요한 20, 9



Jesus had to rise from the dead. Jn 20, 9

**십자가의 길 (Stations of the cross)**



- ◆ Families interested signing up for Sunday School or would like to volunteer, please contact Irene Song at 951-346-6151

**4/10 우리들의 정성  
Weekly Contributions**

주일헌금/Plate	10am: \$991 (146명) 3pm: \$300 (65명)
교무금 Envelope	\$2,350 이동욱, 윤선영, 이유진, 이우춘, 이영송, 김주호, 윤인희, 임판수, 손정도, 김연희, 홍한표, 김한엽, 김영주
교구발전기금 DDF	\$225 한현매, 이동욱, 이우춘
합계 Total	\$3,866



# 주보광고 / Bulletin Ad

## Acupuncture Natural Healing Center

(유수 한의원)

Why live with pain?

Byung Chan Kim L.Ac (Mathias)

10600 Magnolia Ave Ste F, Riverside, CA 92505

Office: (951)688-8837

## Ortiz Tree Service

Commercial & Residential & Industrial

Office: 714 - 639-7363

Cell: 714 - 402-7081

ortiztreeservice@gmail.com

## 북경 (PEKING)

CHINESE RESTAURANT

951-687-4822

11170 C Magnolia Ave., Riverside



Tel: 951-207-5339

P.O Box 51397

Riverside, CA 92517

www.Antexpest.com

Complete Pest Control Service

광고문의 (Bulletin Ad)

951-533-580

광고문의 (Bulletin Ad)

951-533-580

광고문의 (Bulletin Ad)

951-533-580

## 교리상식 101

12. 미사 때 성작에 포도주를 붓고 물을 조금 섞는 것과 성체의 한 부분을 떼어 성작 안에 넣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사제는 포도주가 담긴 성작에 물을 조금 부으며 "이 물과 술이하나 되듯이 인성을 취하신 그리스도의 신성에 저희도 참여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창으로 찢린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을(요한 19,34 참조) 상징하는 포도주와 물을 섞는 행위는 하느님이시며 인간이신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일치, 그리스도와 교회의 일치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사제는 평화의 인사를 나눈 다음, 성찬의 빵을 쪼개어 성작에 한 부분을 넣을 때 "여기 하나 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과 피가 이를 받아 모시는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예식은 구원의 업적에서 주님의 몸과 피의 일치, 곧 살아 계시고 영광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하나됨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미사 경본 총지침』, 83항 참조).

참조: CBCK 신자 재교육 교리 상식 1